

안세영, 우승 후 기권... 파리올림픽 '부상 암초'

재활 후 3개월 만에 국제대회 우승... 닷새 뒤엔 인도오픈 기권패 안세영 "무리했나 후회되기도...아픈 곳 보강해 더욱 성장할 것"

부상과 싸우는 '배드민턴 퀸' 안세영(21·삼성생명)의 새해 출발은 여러모로 극적이었다. 안세영은 지난 1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정상에 올랐다. 오른쪽 무릎을 다쳤던 2022 항주아시안게임 이후 3개월 만의 우승이다. 이로써 안세영은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등급 대회(전영·중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모두 제패해본 선수가 됐다. 이 대회 여자 단식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도 안세영이 처음이다. 재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갑작스런 부상과 기록인 터라 안세영도 "신기했다"고 얼떨떨해했다. 그러나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하고 닷새 뒤에 열린 인도오픈 8강전에서 무릎 통증과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기권을 선언했다. 몸 상태를 회복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다 결국 탈이 나고 만 것이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내년 앞두고 들이닥친 악재다. 23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안세영에게서도 복잡미묘한 심정이 느껴졌다. 안세영은 예상치 못했던 우승에 미소를 지어 보면서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걱정에 살짝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안세영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어서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다. 뜻하지 않게 우승하니 저도 어색하게 세리머니를 했었다"고 웃으며 돌아왔다. 인도오픈 기권을 두고는 "급하게 준비했고 경기를 뛰고 싶어 빨리 복귀한 감도 있었다"면서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게임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

상은 치료하면 되고 앞으로 잘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못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안세영은 속마음을 어렵사리 털어놓았다. 안세영은 "무리해서 준비했다 후회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쳐서 올림픽까지 어떻게 갈까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 "계속 아프니까 좀 힘든 것 같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살짝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은 안세영 자신이다. 안세영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1회전 탈락, 2020 도쿄 올림픽 8강전 패배 등 고비 때마다 눈물을 쏟으면서도 이윽고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전의 기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안세영은 부상으로 자유롭지 못한 발놀림을 보완하기 위해 스매시, 클리어 등의 스트로크에 정교함을 더하고 있다. 안세영이 추후 몸 상태를 회복해 넓은 코트 커버 범위를 되살려낸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안세영은 "움직임이 느려지고 제한되다 보니까 공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며 훈련했다"면서 "최상과 최악의 몸 상태를 모두 겪어봤기 때문에 (플레이 방식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갈지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다. 안세영표 끈기와 긍정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아픈 곳을 보강하면 올림픽에선 몸이 좋은 상태로 뛸 수 있을 것"이라며 "올림픽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설레



안세영이 지난 14일 쿠알라룸 퍼릭의 부킷 잘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오픈 2024 여자 단식 쿼터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

고 기대된다. 올해를 낭만 있게 끝내고 싶다"고 걸의를 드러냈다. 안세영은 향후 5주간 전남 트레이너와 재활 과정

을 밟은 뒤 오는 3월 전영오픈 등 유럽 대회에 출전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안세영은 "재활을 하면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지

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첫 출전' 한국 루지, 청소년올림픽 팀 제주 4위



23일 강원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루지 팀 제주 경기에서 한국 김하운-배재성이 질주하고 있다.

2분 32초 910 기록

한국 루지 기대주들이 안방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강원 2024) 마지막 경기인 팀 제주에서 4위에 올랐다. 김소운(신명여고), 김보근, 배재성(이상 상지대관령고), 김하운(사리울중)이 출전한 한국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강원 2024 루지 팀 제주 경기에서 2분 32초

910의 기록으로 전체 4위에 자리했다. 누워서 타는 루지는 썰매 종목 중에서도 국내 저변이 얇은 편으로, 지난 세 차례 청소년동계올림픽 때는 한국 선수가 출전한 적이 없다. 국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5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앞선 남녀 싱글(1인승)과 남자 더블(2인승) 종목에서는 10위 안밖의 순위를 기록하다가 팀으로 뭉쳐서 나선 마지막 제주 경기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루지 팀 제주는 여자 싱글, 남자 싱글, 더블 순서로 주행해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한국은 금, 은, 동메달을 차지한 루지 강국 이탈리아(2분 29초 470), 라트비아(2분 30초 299)와 오스트리아(2분 30초 421)의 뒤를 잇는 선전을 펼쳤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루지에 걸린 금메달 5개 중 4개(남자 싱글, 남자 더블, 여자 더블, 팀 제주)를 휩쓸었다. /연합뉴스

한국, 단체 구기종목 부진에 하계올림픽 최소 출전

여자 핸드볼만 본선 출전권 따내

단체 구기 종목의 잇따른 부진으로 오는 7월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재 파리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낸 우리나라 단체 구기 종목은 여자 핸드볼뿐이다. 여기에 1988년 서울 올림픽 이래 올림픽에 개근해 온 남자 축구가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남녀 하키, 남녀 농구 등은 고배를 들었다. 여자 배구 또한 올림픽 본선 진출 확률이 희박하다. 단체 구기 종목에 걸린 메달은 1개이지만, 여럿이 한 팀으로 힘을 합쳐 세계와 경쟁하는 특성상 단체 구기 종목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국민 단결력 제고에 큰 힘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의 단체 구기 종목 출전팀이 '역대급'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선수 수도 그만큼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5개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수 숫자를 살펴보니 단체 구기 종목 출전팀이 4개(여자 배구·핸드볼·하키, 남자 축구)에 불과했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가 204명으로 가장 적었다. 7개 팀이 출전한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대회 때 선수 수(267명)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대회 때에도 6개 단체 구기 종목이 출전하면서 선수 수는 232명으로 2016 리우 대회 때보다 많았다. 파리 올림픽의 정식 종목 수는 32개이며 앞으로 신생 종목 등에서 출전 쿼터를 더 확보하지 못한다면 28개 종목이 치러진 2016 리우 대회 때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적은 선수가 파리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출전 선수가 200명을 넘지 못하면 1976년 몬트리올 대회의 50명 이래 48년 만에 최소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열린 1988년 서울 대회 때 가장 많은 선수 477명을 파견했다. /연합뉴스

던랩,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기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3년 만에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님 던랩이 이번 주 열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을 앞두고 기권했다. PGA 투어는 23일 던랩이 이번 주는 고향인 앨라배마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출전 포기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던랩은 22일 끝난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정상에 올라 1991년 필 미켈슨 이후 33

년 만에 프로대회를 우승한 아마추어 선수로 기록됐다. 던랩이 프로로 전향하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은 물론 2026년까지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던랩은 일단 휴식을 취하겠다고 대회 주최 측에 양해를 구했다. 던랩은 지금까지 프로 전향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시민덕희
2관	외계+인 2부, 클럽 제로
3관	영화 스미코구라시 - 튀어나오는 그림책과 비밀의 아이, 노랑: 죽음의 바다
4관	시민덕희
5관	위시
6관	외계+인 2부
9관	서울의 봄

7관 싸여들: 신차원! 핑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남아라 수제김밥-, 김위애 김대중, 넥스트 골 윈즈

8관 싸여들: 도그맨, 레트리뷰션, 스프레의 문단속: 다녀왔어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정송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